

# 아주대학교병원소식지

발행인:李成洛 편집인:徐廷鎬 편집:아주대학교병원 홍보과 ☎219-2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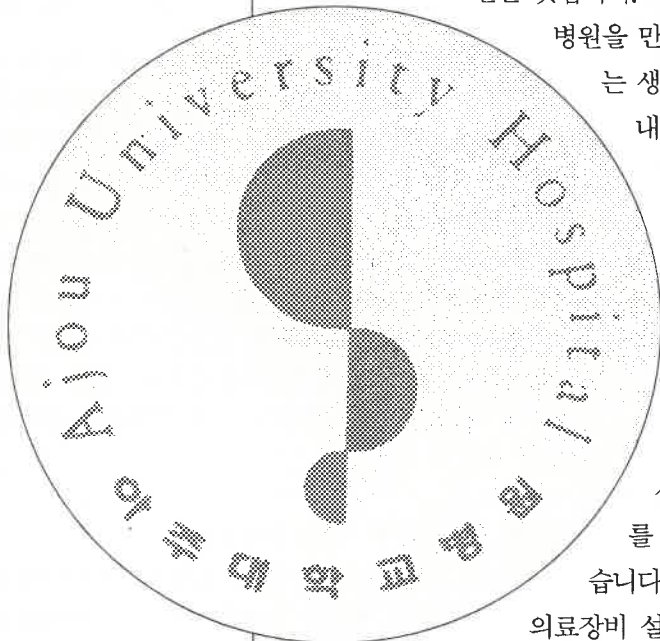
## 발행인의 편지

아주대학교병원이 지난 26일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91년 10월29일 병원 기공을 위하여 첫삽을 뜨지 만으로 30개월만에 병원건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은 준공이지만, 좀 더 좋은 병원을 만들고자 했던 우리의 욕심이 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이 병원건물로서 국내 최첨단시설을 갖추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과 대우계열사 그리고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큼니다. 여기에 병원건립 추진본부 직원 여러분의 그야말로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6월1일 병원이 개원을 하게되면 아주대학교병원은 한강이남 수도권 최대의 병원으로서 수원 시민은 물론 수도권과 중부지방 지역주민의 의료 를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4월부터는 병원의 실제운용을 위한 첨단 의료장비 설치 및 시험가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곧 이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병원전체에 전산시스템이 인체의 신경조직처럼 하나하나 설치되면서 아주대학교병원은 하나의 살아있는 건물로서 작동할 것입니다. 건물 내부공사에 있어서도 병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 부문별 마무리 공사가 세심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병원 미학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아주대학교병원은 환자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게 될 것이며, 건축적인 면에서도 병원건축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변해가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본인은 올해초 다짐했던 것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물의 구석구석 유리창 하나라도 허술하게 방치되지 않고 깔끔하게 정성이 배어있는 병원 건물이 되도록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병원이 친절과 정성이 배어 있는 멋있는 병원이 되도록 우리의 혼을 불어 넣읍시다.

李成洛

## 4월호

- 준공검사 소식
- 병원장 친절특강
- 의료장비 소개
- 선인재에서의 일년
- 병원장 칼럼



**병원 준공검사 성공리에 마쳐**

—수원시청, 3월26일

아주대학교병원이 지난 3월26일 준공검사를 마쳤다. 91년 10월29일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대우학원 김준엽 이사장, 김효규 아주대학교 총장, 이성낙 의과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은 아주대학교병원은 이로써 30개월만에 건물사용 승인을 얻은 것이다. 준공검사가 떨어짐에 따라 그동안 의학관 4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던 추진본부가 병원내 종합사무실로 이전을 개시했는데 4월1일에는 병원 운영1부의 원무과, 의료장비기획부, 운영2부등이 1차적으로 이전을 시작했고 4월11일에는 행정처, 기획부, 운영1부의 나머지 과가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비 1천여억원과 연인원 30여만명이 동원된 아주대학교병원 건축공사는 건물의 기본인 안전성, 편의성 이외에도 최첨단으로 운용되는 인공지능형 병원건축으로서 또 병원 미학적인 측면에서 건축계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건축물로 평가되고 있다.

**李成洛학장 의학회 부회장으로 추대**

李成洛학장이 대한의학회 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지난 28일 서울대병원 교수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 의학회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는 15대의학회장으로 김영명교수(이화의대 의무부총장)를 사상 처음 직선으로 선출하고 부회장으로는 李成洛 아주의대학장, 김기용 울산의대학장, 지제근 서울의대교수 등을 옹립했다. 대한의학회는 국내 분과의학회의 종주단체로서 50여개의 정학회와 20여 준학회를 거느리고 있는 대한민국 의학연구 관련 중앙단체이다.

**신규 간호사예비교육 종료**

병원 운영2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규간호사 교육이 4월8일 종료된다. 지난 2월28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에는 모두 174명이 참석하여 네개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친절한 병원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신규간호사들은 친절에 대해 상당부분 교육받았는데 이것은 간호사들이 환자들과 직접적인 접근이 많은 것에 비하여 기존의 교육이 실무교육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개선해보려는 의도로 풀이되고있다. 총 6주간의 이번 교육은 3주간의 강의 및 교육, 1주간의 기관실습, 임상간호

실습 7일, 전산교육 3일 등으로 짜여졌으며 기관실습은 영동세브란스와 신촌세브란스에서 나뉘어 실시되었다. 교육 주관부서인 운영2부(의료지원부)는 교육종료후 각종 평가를 통하여 성적우수자에게 시상 을 하고, 교육기간중 다른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인 학생에게도 상을 수여할 예정인데 수료식은 4월8일 (금)이다. 4월11일 부터 5월21일까지는 경력 간호사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급식업체 탐방**

-3월17일, 18일 양일간 실시

“아주대학교 병원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시사회”가 지난 3월17일~18일 양일간 있었다. 아주대학교병원 교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시사회 첫째날은 가락농수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서강대학교 교직원식당, 둘째날은 LG유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LG 트윈스 빌딩의 사원식당을 계속해서 방문했다.

이번 시사회에는 추진본부 과장급 간부직원과 관계직원들이 동행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급식업체 선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쓸 예정이다.

**병원 운영2부 설문조사**

아주대학교병원 병원운영2부(의료지원부)는 병원 운영에 수원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지난 3월 “아주대학교병원 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조사”란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원 지역 주민 3백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총 286명으로서 이들이 아주대학교병원에 기대하고 있는 사항은 친절한 병원 항목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기시간 단축, 질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 봉사하는 병원, 성실한 진료등의 순이었다<3면 상자기사 참조>.

**SCI 논문색인지 특강 실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3월21일 의학관 제1강의실에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및 본교 교원을 대상으로 국제 과학논문 색인지인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한 이춘실씨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는 의과대학 및 본교의 50여 교원들이 참

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주제는 80년부터 89년까지 SCI에 색인된 한국 의학논문의 특성 및 위상이었다. 이씨에 따르면 80~89년까지 SCI에 색인된 국내 의학논문은 총 1천2백36편이며 이를 47개 전문분야별(임상 및 기초의학 포함)로 나누어 볼때 한과목당 1년에 평균 2.6편이 색인 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80~89년까지 1백편 이상의 논문이 실림으로써 1년에 평균 10편이상의 논문이 발표된 분야는 약리학,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및 응용 미생물학, 방사선 및 핵의학, 피부과학 및 성병학 등이라고 이씨는 밝히면서 반면에 한편도 색인되지 못한

분야는 노인병학, 법의학, 류마치스학등이라고 덧붙였다.

**실용의학영어 강좌개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실용의학영어 강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94년도 1학기부터 개설, 지난 3월2일 첫 강의를 실시했다. 이번 강좌 개설은 국제화 추세와 관련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생들에게 졸업후 외국인 환자의 진료 및 의학논문의 국제화, 국제회의 참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이성낙 의과대학장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운영2부 설문조사 결과**

병원 운영2부의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2백86명의 수원지역 주민들은 원내에서의 호칭과 관련, 병원직원이 환자의 호칭을 어떻게 불러주었으며 좋겠느냐는 응답에 대상자의 53%가 “~씨”로 불러워지기를 선호했고, 환자가 병원직원을 부를때에는 의사의 경우 선생님이라고 부르겠다는 57%, 간호사의 경우는 간호사님 24%, 간호사 22%, 간호원 14%, 보조원의 경우는 아가씨 39%, 접수창구 여직원의 경우는 아가씨라 부르겠다는 경우가 79%를 차지했다.

면회시간에 관해서 일반 입원환자를 면회하고자 할때 어느 시간대가 적당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오전의 경우 10시경이 48.6%, 오후는 3시경이 34.1%, 저녁은 7시경이 41.7%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중환자의 1일 면회 횟수에 관해서는 2회가 39.7%로 가장 많았고, 면회시간은 5~10분이 적정할 것 같다가 34.4%의 응답을 보였다.

진료시작 시간과 관련해서는 오전진료의 경우 9시가 적당하다가 43%, 오후진료는 2시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4.8%로 나타났으며, 오전 8시와 오후 1시로 응답한 비율도 29.9%와 43.4%로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보호자 없는 병원운영과 관련해서 가족입원시 보호자 상주를 허용치 않는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겠느냐는 응답은 32.4%, 반대 19.4%, 필요시 상주허용은 48.2%의 응답을 보였다. 또한 간병인을 이용한 경험이 있느냐는 응답에는 경험이 없다는 84.7%, 낮에만 이용한 경험은 7.1%, 밤에만 이용한 경험은 5.3%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기회가 생겼을 때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것이라는 질문에는 의료진의 명성 27.5%, 최신시설 25.6%, 의사의 성실한 진료 및 설명 19.5% 등으로 나타났으며, 아주대학교병원이 개원하면 이용하겠느냐는 설문에는 69.7%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최신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기대되므로 42.4%, 의료진이 좋은 병원으로 기대되므로 27.8%의 응답이 나왔다.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사실에 대한 인지도를 물었을 때 72.9%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75.8%가 93년이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해 그동안 들어온 바를 생각할 때 병원개원시 주민의 기대를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더니 병원규모는 96.3%, 의료장비시설 95.7%, 진료수준 95.3%, 병원청결 91.6%, 의료진 91.0%의 높은 기대를 보였으나 직원의 친절성 83.2%, 친근감 84.7%, 교통의 편리성 등에 대한 기대는 다른 부분에 비해 낮았다.

한편 설문에 응한 이들이 아주대학교병원에 기대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없이 물어본 결과는 친절한 병원이 되었으면 한다는 항목이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기시간 단축, 질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 봉사하는 병원, 성실한 진료 등의 순이었다.

강의는 우선 3, 4학년은 20명씩 4개반으로 나누어 매주 2시간씩 진행되고 있는데 진료에 있어서 문진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하여 영어청취력 및 발음, 환자와의 대화법 등 실용의학영어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며, 모든 강의는 영어로 철저하게 진행된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실용의학영어를 1학년 부터 매학기 매학년에 6년간 계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졸업후에는 의과대학생들이 국제화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의료이용욕구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아주대학교병원 사회사업과에서는 3월21일 부터 3월31일까지 20세이상 수원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료이용 욕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원지역 주민의 의료이용욕구와 특성 파악,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아주대학교병원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병원이 앞으로 실시하게 될 각종 프로그램 개발의 보조자료로 쓰여지게 된다.

조사방법은 수원지역 인구를 등위 백분율로 나누고 각 동별 인구수 비례로 일정 등을 지정하여 무작위로 세대를 추출한 후 면접조사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토록 했는데 수집된 자료는 사회통계처리 전산프로그램인 SPSS에 의하여 분석하게 된다.

연인원 120여명의 인원이 동원된 이번 설문조사의 조사항목은 본원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 건강과 의료이용 실태, 대기시간에 대한 의견 등 총100여개의 항목에 달하며, 본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5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성의껏 조사에 응해주었다는 평가다.

4월말이면 설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조사는 아직 개원이 되지 않은 아주대학교병원이 지역주민들의 눈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사회사업과는 밝히고있다.

### 앰블런스 1차 구매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사용될 앰블런스가 지난 30일 1차로 2대 들어왔다. 아시아자동차에서 제작한 Topic 특장차 15인승형을 환자 2명과 의료진, 기사, 보호자 등 총 6명이 승차하여 병원까지 후송중에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할수있게 설계된 아주대학교병원의 앰블런스는 흰색 바탕에 병원심볼이 삽입되어있

고, 차체 하단은 밝은 하늘색을 띠고 있다. 또한 앰블런스 내부 및 장비는 기본 사양 이외에 12가지 선택사양이 추가되어 있으며, 최신형 Trauma Kit II 도 탑재된다.

### 의료원, 개교기념일을 임시휴일로 결정

인사과에서는 올해 의료원 창립일의 대체휴일로 아주대학교 개교기념일인 4월12일(화)을 의료원 임시휴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3월28일 각 부서에 통보했다. 따라서 의료원의 올해 공휴일은 신정, 구정, 삼일절, 식목일, 어린이 날, 추석등 모두 11일로 결정됐다.

### 자원봉사자 모집

추진본부 사회사업과에서는 4월1일부터 병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총255명을 모집하게되는 이번 자원봉사자의 응시자격은 자원봉사 철학을 이해하고, 주 1회 2시간 이상 봉사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다. 아주대학교병원의 자원봉사자들은 병실, 외래, 응급실, 기타 안내 서어비스, 환자보호 등 총12개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병원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병원이 개원되는 6월1일 부터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자에게 친절한 병원을 최고 목표로 추구하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이들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이들이 아주대학교병원의 좋은 이미지를 심는데 큰 몫을 하리라 기대된다. 사회사업과는 모집방법을 우선은 수원지역의 교회, 성당등 종교단체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모집마감은 4월23일 까지이다.

### 볼링동우회 춘계 정기전 개최

아주대학교병원 볼링동우회 아주동그리는 3월23일 춘계 정기전을 개최했다. 4명이 한조를 이루어 모두 5개조가 참가한 이날 경기에서 20명의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했다. 약 2시간에 걸쳐 치뤄진 이번 단체전 경기에서 우승은 구매과 이호원, 운영2부 김영연, 총무과 박현국, 의과대학 정재훈학생 등이 한팀을 이룬 2조가 차지했으며, 이날의 MVP는 최고 득점자인 2조의 박현국씨가 차지했다. 경기중 111점과 151점을 얻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행운상엔 특별회원으로 참가한 대우자동차의 이용주씨가 차지했다. 아주동그리의 회장인

구매과 이호원씨는 앞으로 계속해서 봄과 가을에 정기전을 개최하여 선수들의 기량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여러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MBC 의학정보 드라마 "종합병원" 촬영장소 아주대학교병원으로 결정**

아주대학교병원이 4월중순 MBC방송사의 춘계 프로그램 개편때부터 방영될 드라마 "종합병원"의 촬영장소로 결정되었다. 병원에서 수련받고있는 레지던트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병원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근무중 일어나는 에피소드, 그들의 사랑과 일에 대한 열정, 애환 등을 드라마를 통해서 다루게 될 이번 드라마는 시청자에게 올바른 의학정보를 전달하겠다는 목적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4월4일 첫 촬영을 하고, 4월17일에 첫방송이 예정되어 있는 드라마 "종합병원"은 현재 우리병원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수술장면 등은 부득이 타병원에서 촬영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병원이 깨끗하게 단장되고 내부시설이 완비되는 6월부터는 우리 병원에서 모든 촬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병원 미학적 차원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될 이번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재룡, 전광렬, 신은경, 박형준, 김지수, 오욱철씨 등 젊고 발랄한 연예인이 레지던트로 심양홍, 조경환, 이휘향씨 등 중견 연예인이 원내 스태프로 출연하게 된다.

前文  
 병원에 몸을 담고있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해 의료계 관련 소식을 자주 접해본 사람이라면 [친절]이란 용어가 의료환경에 있어서 특별한 어휘인양 사용되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작년 3월 선언된 연세대의료원의 환자권리장전 내용의 주된 요지가 그렇고 이어서 작년 일년내내 전국의 병원이 저마다 친절한 병원이 되겠다고 선언한 내용 역시 그러하며 새로 설립되는 모든 병원이 내리고있는 병원 운영방침 또한 환자에게 친절한 병원을 약속하고있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을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머무르는 공간에 당연하게 존재해야 할 친절이란 용어가 왜 새로운 어휘인양 여겨져야 했던 것일까. 병원측 입장에서는 경직되게 운영되는 의료보험제도, 방치된 의료분쟁해결 방안등 제도적인 측면이 문제라고 강조한다. 보건학자들은 국민의 의료이용행태와 국내 의료기관의 기능 미분화 현상을 지적하고, 국민들은 의사의 역할에 불만을 토해낸다. 사실 이중에서 어떤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이들 문제는 하나하나 모두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환경에서 병원 바로서기로서의 기본인 친절해야 한다는 병원의 기본 명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 이전에 싫어도 직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아직도 의료기관에 대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친절이고 아주대학교병원 의료지원부서(간호부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수원지역주민들이 아주대학교병원에 가장 크게 기대를 하고있는 것 역시 친절한 병원이다. 병원에서의 친절,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이 친절이란 명제가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덕목으로 자리잡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친절해야한다는 것,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친절은 선언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李鎬榮병원장이 25일 간호사 예비교육에서 친절에 관한 교양교육을 실시했다. 李병원장의 강의를 요약해서 지상중계한다. <편집자주>

## 지상중계 - 병원장특강

## 아주대학교병원에서의 친절

## 친절이란 정성이 살아있는 분위기

국제선항공사의 기내서비스 경쟁에 대한 기사의 내용인즉 외국항공사들이 한국인 승객유치를 위하여 기내음식에 한국음식을 공급하고, 기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영화, 음악프로그램 등도 한국인이 알아듣고 즐기는 것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승객유치를 위한 서서비스 향상이란 측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상업주의로 포장된 친절의 개념이 유행되는 요즘 서울 시내 각 병원에서도 같은 유형의 친절운동이 번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생각되어야 할 것은 병원에서 환자를 대하는 친절이 일정한 훈련을 통해 얼굴에 미소를 담고 부드러운 표정을 보이는 것으로 국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병원의 친절이란 얼굴로 나타나는 외모적인 특징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되며, 그보다는 병원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편하게 항상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정성이 환자가 병원에 들어섰을 때 피부에 와닿게끔 자연스럽게 융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모든 병원인의 책임이고 특히 환자와의 접촉이 많고 병실을 지켜주어야 할 의사와 간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당신은 프로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절함이 배어있는 병원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병원인이라는 직업적 특성과 환자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기술의 논의 이전에 병원과 환자간의 관계를 우선 원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질병이란 늘 환자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무력감을 야기시키게 되어 있다. 환자에게 경제적 수입의 변화도 가져오고 사회구성원, 가족원으로 그동안 발휘해온 기능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환자가 병원을 찾을 때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공포심과 치료에 대한 희망감을 동시에 갖는다. 환자들은 병원을 찾을 때 의사에 대한 소개를 받았거나, 병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은 상황에서 해

당의사에 대한 유명도, 병원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도 의사의 자신있는 진료태도, 편리한 이용시설 그리고 병원의 깨끗한 분위기, 특히 진찰실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깨끗하고 정리된 분위기는 환자에게 자신의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위기는 또한 전문가의 집단이 자신있게 일하는 모습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며, 환자는 이런 분위기에서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 프로정신이 깊게 배어있어야 한다. 이렇게 프로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라

모든것이 그렇지만 정보를 독점하려는 측은 부정적인 행동양식을 보일 때가 있다. 의료진의 경우 God Complex 가 그것이다. 늘 수동적인 위치에 놓일수 밖에 없는 환자를 대하면서 특히 의사는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변해야 한다. 환자에게 질병치료를 있어서의 참여를 인정함으로써 환자들을 수동적인 위치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중환자실, 응급실의 응급상황에서는 절대 수동적인 자세를 요구해야 하지만, 이제 모든 치료팀은 환자가 의료에 대해 모르는 것을 알게끔 지도해야 하고, 환자가 지나치게 치료진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비위를 맞추려는데 도취되면 안된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모두가 잘 듣고 질문을 할 때도 잘 고려된 부드럽고 효과적인 질문으로 환자가 가진 정보를 유도해내야 하며 환자도 자신의 질병치료와 건강에 책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가 치료과정에 참여하는 중에 치료진의 확실한 지도력으로 환자를 강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지속적인 관심과 신축성

병원과 환자와의 사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지속성은 환자가 위기상황에 처할 때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병원과 환자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가 없다면 환자는 병원을 단순한 영리목적만을 위한 기관으로 밖에 보지 않는

다. 이러한 신뢰를 쌓기까지 의사는 환자의 신체적 질병치료자로서의 역할에서 질병에 관계된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상담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워낙 많은 환자를 대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요즘 일상화된 전산화 정보처리의 도움을 빌리면 그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병원에 종사하는 직원 모두가 환자가 진찰을 받기 전부터 가능한한 개개인 환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또 환자의 주변상황까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을 일상화시켜야 한다. 간호사도 환자가 찾아왔을 때의 상태를 기억하고 혹시나 환자가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주저나 부끄러움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관심이 환자의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의존을 야기시켜서는 안되지만 질병치료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바탕을 두어 환자로서 알아야 할 정보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면 그 반응에 적절히 대응하는 직업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 환자의 편견과 무지를 이해하라

몸이 허하다. 맥이 끊려야 한다. 무언가가 위장에 언쳤다. 혈압이 머리로 치솟는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 의학적인 표현으로 맞지는 않지만 우리 환자들의 60%가 병원을 찾기 전에 민속치료나 한약방을 찾았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한다면 그들의 표현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동양적인 사고로서 환자들이 어떤 마술적인 힘에 대한 기대로서 한 순간에 질병이 없어질 수 있다는 “즉시효과”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민속치료와 서양의학이라는 의료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바탕에서 환자를 대해야 한다. 이렇게 즉시효과를 바라는 환자에게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임상검사를 하라고 충분한 설명없이 지시하면 많은 환자들이 불확실과 미지에서 오는 의아심에서 우선 내심적으로 거부반응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상검사과정에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임을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설득시켜야 한다. 그들을 이해하는 바탕이 있어야만 병원은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고 병원이 그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 인간경험으로서의 의술

우리 병원은 환자의 질병을 생물학적 의학의 개념에 의해서만 치유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이같은 접근을 하지 못한다면 병원의 우열을 최신 의료장비로 무엇을 갖추었으며 또 그런 것이 몇대냐 하는 식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요즘의 기계 만능주의를 벗어날 수 없는 평범한 병원이 되고 만다. 환자가 병원을 찾아오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행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람이 남과 같이 살면서 도움을 나누는 인간경험이라야 한다. 의사를 위시해서 치료에 참여하고 이 치료를 돕는 진료팀이 환자가 병원에서 겪는 일들이 또 하나의 인간경험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베푸는 의술은 새로운 전인적(全人的)의학개념으로 재정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의학개념이야 말로 환자가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한 인간이 겪는 고통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과 질병치료 및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치유인자를 응용하는 생명의 의술이 될 수 있다.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의 손을 한번 잡아준다거나, 때로는 환자의 책임에 대해 명확한 한계를 그어 준다거나, 또는 환자에게 질병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등 여러 인간적인 돌봐줌의 메시지를 환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경험으로서의 의술이 제대로 자리잡을 때 우리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새로운 의료문화를 정립시키게 될 것이다.

#### 우리의 직업을 완전히 수용하자.

이상의 철학과 신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친절함이 배어있는 새로운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직업을 완전히 포용하는 수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업수용은 병원의 모든 직원이 환자의 입장이 되어 그가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이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예민성을 갖추게 되며 연마된 실력과 탁월한 의식이 동참되어 여유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로 인간성이 풍요한 아주대학교병원을 만드는 근본이 될 것이다.

李 鎬 榮

## 아주대학교병원 의료장비에 대하여

6월이면 개원하게 될 아주대학교병원에 도입되는 의료장비에 관해서 의료계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있다. 같은 목적의 장비라도 현 시점에서 최대로 개선된 성능을 가진 장비가 도입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신설 대학병원으로서 이들 장비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대략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운용의 측면보다는 우선적으로 도입되는 의료장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진단장비

우선 진단에 관련된 장비를 소개하면 대표적인 장비로 영상진단장비의 꽃이라 불리는 자기공명 영상 시스템 M.R.I (1.5 Tesla) 1대에 EPI(Echo-Planer Imaging) 기능을 포함한 G.E社의 M.R.I 장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전신 전산화단층촬영기(CT-Slip Ring Type)도 기존촬영기 보다 진단시간을 1.5배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Slip Ring Type의 G.E社의 CT 2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혈관촬영기 부분은 Philips社의 일반 혈관촬영기 (General Angiography System) 2대와 심장혈관을 전문적으로 촬영 및 조영이 가능한 심혈관 촬영기 (Cardiac Angiography System) 2대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각종 심혈관 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 및 분석할수 있는 HP社의 Cath Lap System 2대 역시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신의 연부조직이나 뼈의 병소를 한장의 사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전신촬영 감마 카메라 (Whole Body Computerized Gamma Camera)를 Single, Dual, Tripple Head 등 세개의 종류 모두 갖추게 되는데 기중으로는 이들 기기중 최상위의 장비로 인정되는 Siemens社의 전신촬영 감마카메라로 결정되었습니다.

### 치료장비

치료장비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장비인 선형가속 치료기 (Linear Accelerator)는 근대 방사선 치료기의 주류로서 피부표면에 위치한 종양에서 인체내부 가장 깊은 곳까지 위치한 종양 모두를 치료할 수 있는 최신장비를 구비한다는 원칙아래 VARZAN社의 Clinac 2100 C/D 1대를 구비하면서 이 기기에다

심층부의 종양도 컴퓨터 제어에 의해 치료가능한 Multi Leaf Collimator 기능을 포함시켜 구매함으로써 환자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암치료에 최신의 기능과 성능을 갖춘 Nucletron社의 근접치료기 (Brachy-Therapy System) 1대가 도입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 기타장비

정보전산화 부분에서는 1대에 330여종의 알약을 장착하여 자동포장이 가능한 Sanyo社의 자동정제 포장기 (Automatic Tablet Counter Machine) 3대를 도입하여 정제인 경우 환자의 투약대기시간을 15분 이내에 가능하도록 하였고, 일반 X-Ray 촬영을 필름으로 직접 촬영하지 않고 Imaging Plate CIP Cassette에 촬영하여 자동현상이 가능토록 한 장비인 FUJI社의 컴퓨터 X-Ray 필름현상장치 (Computerized Radiography System)를 도입하여 환자의 촬영시간 및 대기시간을 단축 가능하도록 하였고, 필름해상도 역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진단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검사실, 병실, 응급실, 앰블런스 등에서 환자의 ECG Data를 전송할때 이들 기록의 관리, 저장, 분석이 가능한 장비인 Marquette社의 ECG Data 관리 시스템과 Holter Monitoring System, Exercise Stress test system 등을 도입하여 환자의 ECG 관련 Data를 체계적으로 관리, 저장, 분석토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모든 수술실에 ZEISS社의 수술현미경 (Operating Microscope)을 도입하여 정밀수술을 가능하게 하였고, HP社의 심초음파 2대, Video EEG System 3대, 대당 2,000여종의 검사가 가능한 Hitachi社의 자동생화학 분석기 2대, Lunar社의 제 3세대 골밀도 측정기 1대 등 최첨단 의료장비도입으로 진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 명실공히 교육, 연구, 진료 목적의 대학병원으로서 위상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며, 환자에게 편안한 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것으로 믿는다.

의료장비기획부 황인렬



## 이런모임 저런만남

## -병원 축구부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의 봄이 왔습니다. 봄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아지랑이와 푸른 잔디가 그 대명사일 것입니다. 잔디위에서 뛰는 그 어떤 것도 활력과 생동감이 있습니다. 이런 생동감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다 축구를 사랑하시겠죠?

저는 아주대학교병원 축구동우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빠듯한 한 주간의 업무지만 저희 축구동우회는 한달에 한두번씩 토요일 오후를 이용하여 축구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통하여 직원 상호간의 유대감은 물론 자신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이 아주대학교병원축구동우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30여명의 동우회원들이 청백전을 하거나, 본교 교직원 축구팀과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직 큰 대회에 출전한 적도 없고, 뛰어난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단지 축구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축구예찬에 대해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모인 사람들이 한팀을 이루고 작전을 세워 패스를 통하여 상대방 골문 가까이에서 슈트를 날려 득점을 할때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나의 팀이 실점을 했다면서 서로 위로하고 다시 화이팅을 외치고 상대방 골문을 향해 뛰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이 아닐까요? 또 이런 것이 축구의 매력입니다. 남자라면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경기를 통하여 팀웍과 협동심도 배울수 있는 축구. 저는 이런 축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병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사, 간호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좋은 병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란 쉽지않을 것입니다. 축구가 아니더라도 이런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 어떤것이 있다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개원과 더불어 저희 축구동우회에서는 병

원의 앞날 만큼이나 살아움직이는 여러분의 모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피곤한 심신이 맑은 원천동산에서 마음껏 토해낼 수 있도록 하며, 몸과 몸이 부딪이는 가운데 뜨거운 인간의 정을 느낄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여러분은 신바람나는 직장 바로 그 현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희 축구동우회는 승패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테크닉의 우위에 갈채를 보내지 아니하며, 다만 뛰며 참여해서 얻어지는 땀 한방울에 큰 기쁨과 환호를 보낼 것 입니다. 비록 월드컵 대표선수도 한국 대표선수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심신의 건강을 보답으로 드릴겁니다.

아직 저희 동우회에 여자회원은 없지만 여성회원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많은 직장의 특성상 우리병원에도 여직원 축구회가 생긴다면 저희는 여성축구팀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싸인 스트레스와 피곤함 모두 축구동우회에 가져오십시오. 깨끗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지참금은 무료이며 준비물은 바로 당신뿐 이십니다.

전산개발부 하태용



## The Snake That Poisons Everybody

It  
 topples  
 government,  
 wrecks  
 marriages,  
 ruins  
 careers,  
 busts  
 reputations,  
 cause  
 heartache,  
 nightmares,  
 indigestion,  
 spawns suspicion,  
 generates  
 grief,  
 dispatches  
 innocent  
 people  
 to cry in their  
 pillows.  
 Even its name  
 hisses.  
 It's called  
 gossip.  
 Office gossip,  
 Shop gossip.  
 Party gossip.  
 It makes  
 headlines  
 and headaches.  
 Before  
 you repeat  
 a story,  
 ask yourself:  
 Is it true ?  
 Is it fair ?  
 Is it necessary ?  
 If not,  
 shut up.

그것은  
 정부를  
 무너뜨리고,  
 결혼을  
 파괴시키고,  
 직장을  
 파멸시키고,  
 명성을 더럽히고,  
 심장마비와  
 악몽,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며,  
 의혹을 심고,  
 비탄을 낳고,  
 죄없는 사람을  
 밤새 울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어쩐지 기분 나쁘군요.  
 그것은  
 남의 뒷말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회사의 뒷얘기  
 직장의 뒷얘기  
 파티의 뒷얘기  
 그것은  
 신문의 머릿글자와  
 머리아픔을 함께 만듭니다.  
 남의 뒷얘기를  
 옮기기 전에,  
 자신에게 한번 물어 보세요.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공정한 얘기일까?  
 필요한 얘기일까?  
 그렇지 않다면,  
 입을 다무세요.

- from United Technologies Co. Ad -

만인을 독살하는 독사여!

**선인재에서의 일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쉼터인 선인재가 오는 4월로서 문을 연지 만으로 1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어려울 때나 굶을 때를 마다하지 않고 의과대학 및 병원추진본부의 교직원과 학생들의 식사문제를 해결해준 선인재 주인아줌마의 지난 일년을 들어본다.

94년도의 4월은 '완연한 봄날'이라는 진부한 표현이 새삼스러운 날씨인양 오히려 초여름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밖의 날이 좋을 수록 썰렁해지는 의학관 지하를 지킨지 벌써 만으로 1년, 우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및 병원 추진본부 교직원들과 의대생들의 식생활 해결과 여유로운 휴식문화를 위해 시작한 선인재 운영이 1년을 맞으니 여러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 선인재 운영제의를 받았을 때는 유난히 단체소속을 꺼려하는 습성으로 많이 망설였고, 처음 해보는 식당이라는 일이 낯설기에도 했지만, 학장님 이하 여러선생님들의 간곡한 권유와 동생같은 의대생들의 가장 시급한 복지문제가 균형잡힌 식사와 휴식공간 확보라는 점을 생각해서 과감히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막중한 업무에 특유의 근성을 발휘해서 전혀 새로운 단체급식의 면모를 보여주고도 싶은 마음이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같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마음만 앞선 관계로 적자는 계속 누적되어 갔고 마음으로 느끼는 사소한 부작용들이 한데 휘몰아 가슴을 애렸습니니다. 그래도 여러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특유의 순수한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가슴을 꽉 채우는 보람이었습니다. 더우기 의사고시때의 마음 졸임, 합격자 발표 때의 가슴 벅참, 크고 작은 좋은 일, 걱정, 이 모든 일들에 함께 하여준 여러분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건 그렇고 올해 4월은 조금은 섭섭한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들었던 추진본부 직원들이 병원 준공검사가 떨어짐에 따라 하나 둘 병원으로 이전을 하게되어서 어쩔거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하루 업무가 끝날 때마다 내일은 조금 더 신선하고 영양가있는 음식을 제공하리라 생각했던 마음을 현실로 보답하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아닌가하여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병원으로 이사를 했다고하여 아주 멀어지는 것도 아닌바에야 지난날의 아쉬움을 고운 추억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인재 조리식구들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모든 식구들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휴식처로서의 '선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급의 급식 서비스를 위하여 지금보다 더 성의 있는 조리자세, 위생적인 처리, 충분한 양, 우아한 분위기,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아껴준 선인재를 아껴준 여러분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바라며 병원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선인재 박종숙**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주대학교 의료원 포토클럽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힘입어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비록 10여명의 적은 회원이지만 활동은 어느 모임보다 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토클럽의 회원이 되실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원무과 송기정**

## 병원장 칼럼

최근에 병원들이 하나같이 친절하 병원, 환자를 위한 병원이란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그동안의 병원 관행으로 보아 국민들은 아직도 그 본심을 의심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사명의 하나는 새로이 탄생한 3차 지역의료기관으로 그동안 병원과 국민 사이에 생긴 불신의 벽을 무너트리고 신뢰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다. 최근에 막대한 투자로 최신 의료장비가 구비된 대형 종합병원들이 줄이어 세워지고 그 병원들이 하나같이 친절하 병원, 환자를 위한 병원의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그 병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된 것인지 또는 진정으로 환자들의 편이 되어 양질의 진료를 베풀어 주기 위한 것인지 국민들은 아직도 그 본심을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병원들이 보여준 진료행위가 불친절한 대우를 받고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관행이 되자 구호만 가지고는 자신들의 고통을 한편이 되어 덜어 주려고 노력하는 병원으로 쉽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 여러 해를 거치는 동안 속깊이 병원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아주대학교병원이 막대한 돈을 들여 전산화작업을 이루어 놓은 이유는 전산화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번거롭고 부담이 되더라도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를 배워 환자가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이다. 즉 최신기계로 진단의 정확성을 기하고 수술을 받는 데에도 동반되는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예약제도를 실시하여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덜어주며 그들의 입퇴원 수속이 순리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궁극에 가서는 전산화 된 병원에서 환자가 자기에 관한 모든 의학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 자기가 그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새로운 의술의 약속이 있어 아주대학교병원의 전산화는 성공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천년대에는 환자들이 병원에 와야 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된다. 일년에 평균 국민 한 사람이 두 번 내지 세 번 병원에 오던 것이 아마 한두 번으로 줄어 들고 환자들은 집에서 전산의 연결로 지난번 진찰 받았던 검사들의 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따르는 의사의 지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정보의 나눔으로 환자들의 병원 방문율은 떨어지고 또 분명히 떨어져야 한다.

우리 아주대학교병원이 환자들에게 꾸준히 보여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병원과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가 환자들로 하여금 될 수 있으면 병원에 찾아오지 않게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노력을 계속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환자들 마음 속에는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된다.

불필요한 환자들의 외래방문, 입원, 장기 입원 등을 최소화시켜 병원의 경제적 이익은 줄어들더라도 그들의 이익이 보호되는 병원이 되어야만 우리 병원은 과연 믿음으로 만나는 깨끗한 병원이 될 것이다.

李 鎬 榮